

# 내륙엔 윤선도 바다엔 전북 알찬 섬 보길도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완도편 - 보길도·소안도



보길도 해역을 뒤덮은 가두리양식장.

정산도에서 슬로시티정산호를 타고 완도를 화흥포항에 도착한 뒤 다시 그곳에서 노화를 동천항으로 향했다. 완도의 서쪽 군도(群島)를 형성하고 있는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는 해남군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황간도, 당산도, 남도 등 꽤 큰 섬은 물론 소정원도, 대정원도, 죽골도 등 68개의 유인도와 무인도로 구성돼 있다.

한 데 모아진 섬들은 높은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며, 이 지역을 전복을 비롯한 수산양식의 최적지로 만들어 줬다. 초창기 완도 전복의 명성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들 섬이다.

노화도는 연간 2360t(708억원)의 전복으로 완도군의 35%를, 김·파래는 연간 6690t(46억9000만원)으로 완도군의 15%를 책임지고 있다. 1986년 4월 보길면이 분면되면서 면적에서는 다소 축소됐지만 '읍'이라는 지위에서 알 수 있듯 완도 서쪽 군도의 '우두머리'다. 총면적 31.84㎢로 완도군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노화읍은 2600세대 5610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복 양식으로 역대 어가들이 속출하면서 '리턴'하는 자녀나 역대 연봉을 목표로 섬에 정착한 외지인들도 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31명의 학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외지인들의 전복 양식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대부분 어촌계에서 해역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5~10년 이상 거주, 일정 구역에 대한 2000만~4000만원 수준의 보증금 등의 조건이 붙고, 거기에 1대당 1억4000만원을 호가하는 포크레인배 등 값비싼 양식 장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오랜 기간 전복 양식으로 인해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해역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과거만큼 '수'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화도는 그 흔한 관광안내도조차 없다. 읍사무소에 들어가 찾을만한 곳을 물었다니 돌아온 것은 2012년 말 제작된 축적 1:50,000 지도였다. 해변 곳곳에 전복 등 수산양식장이 들어서 있어 경관이 거의 비슷하고, '윤선도의 섬' 보길도와 '태극기의 섬' 소안도라는 걸출한 스타섬이 있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지인은 노화도를 거쳐가는 섬으로 여기고 있다.

연도교인 보길대교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보길도다. 노화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길도에 접어들면서 외제차는 마치 국내 중형차 만나듯 마주쳤다.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고급 벽돌주택도 즐비하다. '관광의 메카' 자리를 청



윤선도가 보길도에 남긴 조선 중기의 정자 '세연정'.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 정자를 위해 200여명의 노비들이 수 년간 매달렸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 조선 중기 정자 세연정·동천석실 등 유산 산재 공룡알 해변·망끝전망대·보죽산...볼거리 가득

### '항일 메카' 소안도, 1100여개 태극기 물결 몽돌·천연기념물 상록수림 등 경관 뛰어나



태극기의 섬 소안도. 1349세대 2772명이 사는 소안도에 1100여개의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

산도에 내준 보길도는 노화도와 마찬가지로 전복과 미역·다시마·청각·김 등을 양식하며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23년 전 7급 공채로 들어와 최근 취임한 이석우 면장은 보길도의 자연경관 훼손을 걱정했다. 이 면장은 "섬 행정 대부분이 언제부터인가 청소에 맞춰지고 있다"며 "양식 도구들이 이곳저곳에 무분별하게 쌓여 치어내도 끝이 없다"고 토로했다. 천혜의 바다로부터 '부'를 일궈 땅값 높은 광주 상무지구의 아파트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막상 자기 양식장 또는 주거지 주변 청소는 행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보길 출신으로 면사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최만규(37)씨가 안내를 맡았다.

파적됐다가 1636년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갔으나 청나라와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향했다다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서 은거한 사람이 윤선도다. 그 후 잠시 유배 간 1년을 제외하고 1652년까지 해남에서 15년을 머문 양반 윤선도는 이 섬에 다양한 자원을 남겼다. 먼저 세연정이 있다. 연희와 유희의 장소인 이곳은 동대와 서대가 있어 기생들이 군무를 쳤고, 노비들이 나른 음식과 술을 마시며 윤선도가 즐겼던 곳이다. 고위관리를 지낸 양반의 섬 생활은 당시 섬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호화 그 자체였던 것이다. 세연지라는 연못을 만들기 위해 판 석보, 연못을 갖춘 윤선도 아들의 휴식처 '곡수당', 윤선도의 주거지인 낙서재, 모두를 포함해 보길도를 조망할 수 있는 동천석실 등도 그의 자취다. 최씨는 "윤선도가 이 섬에 올 당시 200명이 넘는 노비를 데리고 왔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세연정을 나오자 계곡에 먹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물이 귀하다는 섬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보길도는 앞서의 생일도와 같이 물이 풍부한 곳이다. 둘러보니 격자봉(433m)를 정점으로 수리봉(406m), 망월봉(364m) 등의 산맥이 동그레니 보길도를 감싸고 있었다. 깊은 골짜기가 곳곳에 있어 물과 같은 물결을 만든 것이다. 1257세대 2927명이 사는 보길도 식수는 남이들어 인구가 많은 노화도 주민들에게도 공급된다. 산세가 좋아 사시사철 등산객이 찾아 높은 봉우리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을 즐기고 있다. 보길도 해역에도 곳곳에 전복이 자라나고 있다. 유일하게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없는 곳이 바로 섬 최남단에 자리한 보옥리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추자도와 제주도가 바로

보인다. 보옥리는 파도가 높아 전복 양식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멸치 어장이 있어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젓갈로도 유명하다. 이 보옥리에 더 유명한 것은 공룡알 해변과 일명 뽕죽산이라고 하는 보죽산이다. 공룡알 해변의 물은 여느 몽돌과 같이 동근데, 그 크기가 자갈이 아니라 공룡알 정도의 크기다. 195m짜리 보죽산은 여느 산보다 높게 느껴진다. 각이 진 외형에 평평한 바다 바로 앞에 솟아 있어 그렇게 보인다. 서해의 일몰을 볼 수 있는 망끝 전망대에서는 이날 좋은 날씨 덕에 제주도를 구경할 수 있었다. 천연 갯벌과 상록수림을 자랑하는 예송리해수욕장, 방파제로 인해 이제는 은모래가 사라지고 있는 중리 은모래 해변과 통리 솔밭 해변, 출렁다리가 계획중인 예작도, 송시열의 글쓴바위, 남은사, 백련사터 등 보길도의 볼거리는 너무도 다양하다.

소안도는 노화도 동천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본도를 포함한 4개의 유인도와 12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국가 서훈을 받은 항일운동가만 20명이 있는 항일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소안도에 도착하면 우선 집집마다 걸려 있는 태극기, 기념탑과 복원된 사립소안학교가 중심이 된 테마공원이 있다. 1349세대 2772명이 사는 소안도에 1100여개의 태극기가 걸려 있으며, 지난 2015년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가 된 뒤 완도 화흥포항과 노안·소안도를 오가는 선박의 명칭은 대한·민국·만세호로 명칭을 바꿨다.

소안도 역시 보길도에 못지 않게 볼거리가 많다. 몽돌과 해송, 후박나무 메밀밭나무, 구실밭나무, 사스레피나무, 보리밭나무 등 24종 776그루의 숲이 400m 길이에 조성된 미라리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339호)과 맹선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340호) 등이 대표적이다. 가학산(359m)과 대봉산(337m)이 있어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고, 해변도로가 있어 섬 주변과 바다의 경관을 즐길 수도 있다. 소안도에 8경이 있다. 역시 달과 파도, 돛단배, 피리소리, 구름, 숲 등이 그 주제지만, '8경'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섬이 가진 대표 자연경관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소안도는 동쪽의 파도가 높아 김 양식을 하고, 서쪽은 전복 양식을 한다. 김은 144여개가 2만8000t(224억원)으로 완도군의 60%, 전복은 290여개가 1670t(584억원)으로 완도군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김과 전복의 섬이기도 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